

패션 트렌드를 발신하는 곳은 어디인가?

공적인 패션 정보기관으로는 ① 국제유행색위원회(INTERCOLOR) : 색상 정보를 세계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관, 한국에는 한국유행색협회(KOFCA)가 있다. ② 국제양모 사무국(IWS, 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 : 옷을 중심으로 색상, 디자인, 소재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국제면업진흥회(I. I. C)는 면을 중심으로 색상, 디자인, 소재 등의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패션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인 정보회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프로모스틸(프) IMF인터내셔널(영), 프리즘(영) 드리믹 페크렐즈(프) 그 밖에도 각 나라에서 많은 기획 회사들이 있다.

각국의 대형 섬유회사 메이커는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가 살펴보자. 이 기관들은 파리 컬렉션이나 밀라노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이너의 라인을 참고로 하거나 전세계 도시, 특히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동경 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취향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 나간다. 개인이 느끼는 인스프레이션(Inspiration, 예감, 영감)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이나 거리 속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그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미리 읽어 낸다.

트렌드의 출처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장 폴 굴티에(Jean Paul Gaultier), 클로스 몬타나,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업적이 트렌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년마다 2,3회 정도 디자이너는 쇼를 개최한다든지 전시회에 출품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의 라인을 내놓게 된다. 매년 동일한 것을 만들고 있다면 바이어가 물려들지 않음으로 그 때 마다 새로운 것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새롭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다음 쇼를 열지 못하게 되므로, 트렌드의 파악과 발신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디자이너들이다.